

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2. 주간 이슈 4

- 新기후변화체제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

주요 동향

◇ ECB, 기준금리 '제로'·양적완화 확대 등 초강력 경기부양 채택

- 유럽중앙은행(ECB)이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0.05%의 기준금리를 0.00%로 낮춰 사상 첫 제로 기준금리 채택, 예금금리도 -0.3%에서 -0.4%로 인하하는 등 마이너스 금리 확대
- ECB는 국채매입 등을 통한 양적완화 규모를 월간 기존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다음 달부터 확대하고, 매입대상에 비금융회사채도 포함하기로 결정
- 이번 조치는 기대보다 크게 낮은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저성장 흐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
- ECB는 올해 유로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1.0%에서 0.1%로, GDP 증가율도 종전 1.7%에서 1.4%로 하향 조정
- 다만,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ECB 총재의 부정적 발언으로 시장은 실망감을 나타냄.

◇ OECD 경기선행지수 부진 지속, 전월대비 소폭 하락

- 1월중 OECD 경기선행지수는 전월(99.7) 대비 소폭 하락한 99.6을 기록, 지난해 5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
- ※ OECD 선행지수 : 99.9(9월)→99.9(10월)→99.8(11월)→99.7(12월)→99.6('16. 1월)
- 6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.0 이하를 기록해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냄.
- 선진국에서는 영국(99.1, $\Delta 0.13$), 미국(98.9, $\Delta 0.14$), 일본(99.5, $\Delta 0.16$)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락했으나, 유로존(100.5, $\Delta 0.04$)은 전월과 유사
- BRICs 국가는 인도(100.1, 0.04 \uparrow)만 상승하고, 브라질(97.7, $\Delta 0.06$), 중국(97.6, $\Delta 0.07$), 러시아(98.0, $\Delta 0.35$) 등은 모두 하락

주요 동향

◇ 국제유가, 공급과잉 완화 기대감으로 3월 들어 상승세 지속

- 3월 이후 셰일오일 생산감소, 산유국 생산량 동결 기대감 등으로 유가가 대폭 상승하여 2개월래 최고치 기록

※ 최근 1개월간 두바이유 가격 추이(\$/bbl)

: (2.11일) 26.02 → (2.19일) 30.07 → (2.29일) 29.99 → (3.10일) 36.25

- 미국 셰일오일은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추건수 급락*, 프로젝트 완공 연기 등으로 IEA는 2016년 미 셰일오일 생산량이 60만 b/d 감소 전망

* 2.19일 기준 미 원유시추 건수는 413건으로 2009년 12월 이래 최저치 기록

- 러시아 및 UAE 장관의 생산량 동결 발언 등 산유국 생산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 상승

- 중국 지준율 인하 등 중국경기 부양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기대

- 한편, EIA(미 에너지정보청)는 지난 3월 8일 발표한 유가전망에서 2016년 WTI유 가격을 34.04달러로 전월대비 9.5% 하향조정

◇ 중국, 2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25.4% 하락·2009년 이후 최대 감소

- 중국 2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5.4% 하락,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5월 기록한 26.4% 이후 6년 9개월만에 최대 감소

※ 중국 수출증가율(%) : △6.8('15.11월)→△1.4(12월)→△11.2('16.1월)→△25.4(2월)

- 동기간 수입은 13.8% 감소, 무역수지는 325.9억 달러 흑자 기록

- 글로벌 수요 둔화로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위축됐으며, 지난해 2월 높은 수출증가율에 따른 기저 효과 및 춘절 연휴 영향 때문으로 분석

- 중국 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도 춘절 영향으로 전월 대비 0.4p 하락한 49.0로 2011년 11월 이후 4년만에 최저치 기록, 연속 7개월째 50.0선 하회

① 외환시장

구 분	'15년말	'16. 3. 4	'16. 3. 11	전주비
₩/US\$	1,172.5	1,203.4	1,193.1	△10.3
₩/100¥	974.1	1,056.6	1,052.0	△4.6
CNY/US\$	6.4912	6.5208	6.4955	△0.0253
¥/US\$	120.4	113.9	113.4	△0.5
US\$/€	1.0930	1.0954	1.1177	0.0223

② 채권시장

구 분	'15년말	'16. 3. 4	'16. 3. 11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1.66	1.52	1.55	0.03
미국 국채(10년)	2.27	1.83	1.93	0.10

③ 주식시장

구 분	'15년말	'16. 3. 4	'16. 3. 11	전주비
한국 KOSPI	1,961.31	1,955.63	1,971.41	15.78
미국 DJIA	17,425.03	17,006.77	17,213.31	206.54

④ 해운시장

구 분	'15년말	'16. 3. 4	'16. 3. 11	전주비
BDI 지수*	478	349	388	39
HRCI 지수**	449	451	451	-

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*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⑤ 유가

유 종	'15년말	'16. 3. 4	'16. 3. 11	전주비
WTI유 현물	37.04	35.92	38.50	2.58
Brent유 현물	37.28	38.72	40.39	1.67
두바이유 현물	32.19	32.17	36.37	4.20

◆ 新기후변화협약 타결이후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바 산업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1. 新기후변화체제 등장

- 2015년 12월 파리에서 新기후변화체제 출범이 타결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
 -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기존 목표치 2℃보다 진전된 산업화 이전 대비 1.5℃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
 - 이를 위해 세계 195개국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하여 5년마다 이행점검을 받기로 합의
 -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기금 조성 마련에 합의했으며,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논의될 예정
- 新기후변화체제 등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발전분야
 -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40%를 발전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, 발전산업 중 80%가 석탄발전에서 발생
 -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 사용 억제 정책 강화로 발전산업의 “탈석탄화”는 가속화될 전망

<주요 산업 및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>



자료 : 에너지경제연구원, IEA

2. 新기후변화체제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

□ 新기후변화체제 출범에 따른 최대 수혜 산업은 신재생에너지산업

- 지구 온도 상승을 2℃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~60% 감축이 필요

※ 2014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400억톤이며, 중국 104억톤, 미국 52억톤, 유럽 34억톤, 우리나라도 6.9억톤으로 세계 6위권

-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을 계산해 보면 총 3,000GW(금액기준 4.2조달러), 연간 165GW(2,800억달러)가 필요

- 2012년 500GW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030년까지 연 11%씩 증가해 3,500GW에 달할 전망

- 발전단가, 및 현재 점유율을 고려한 분야별 설치량을 전망해 보면 태양광 1,800GW, 풍력 1,000GW, 바이오매스 170GW, 지열 30GW 순

-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풍부한 자원과 설치가 용이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

※ 주요 발전원별 발전단가 현황 및 전망(중국 기준, 단위 원/kWh)

2015년 : 석탄(52), 가스(100), 태양광(90), 풍력(74) → 2030년 : 석탄(62), 가스(94), 태양광(50), 풍력(60)으로 태양광발전이 가장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질 전망

<세계 발전산업 원별 설치 전망>



자료 : New Energy Finance

3. 20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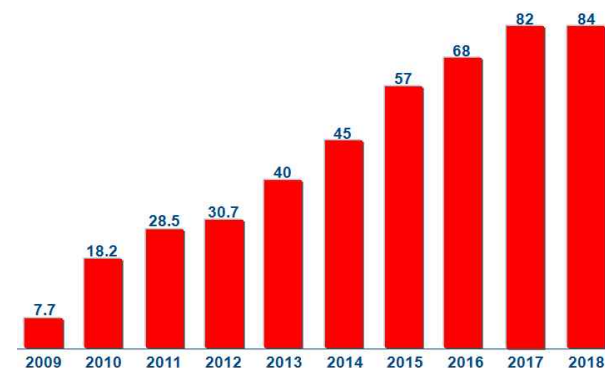
(1) 태양광

- 2016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전년대비 21% 증가한 68GW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, 2017년에도 20% 성장할 전망
-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태양광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전년대비 24% 성장
- 지역별로는 중국(19GW), 일본(14GW) 및 미국(10GW)이 주요 시장이며, 신규 유망시장으로 인도(4GW)가 주목받고 있음.
- 태양광 수요 증가로 공급과잉 상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전망
 - 공급과잉량 : 폴리실리콘 5만톤('15년) → 2만톤('16년), 모듈 20GW('15년) → 15GW('16년)

(2) 풍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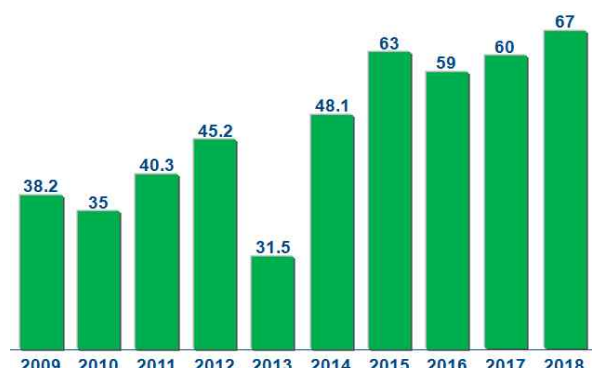
- 2015년 이후 세계 풍력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, 2016년 설치량은 전년대비 6% 감소한 59GW
- 지역별로는 최대 풍력시장인 중국(21GW) 수요가 25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, 미국(12GW) 및 유럽(10GW) 수요는 전년과 비슷할 전망
- 저렴한 발전단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입지 조건 및 밤 시간대에 주로 발전되는 풍력발전 특성으로 수요 확대가 어려울 전망

<세계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>



<세계 풍력시장 현황 및 전망>

(단위 : GW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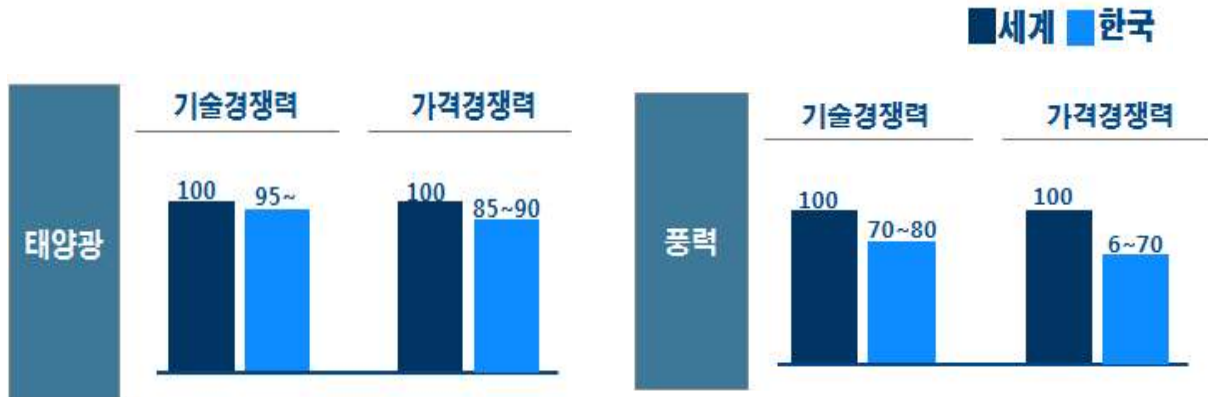
자료 : New Energy Finance, 전망치는 한국수출입은행

4.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및 경쟁력

- 2015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1GW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
 - 2015년 태양광 746MW, 풍력 239MW가 설치되어 2012년 RPS¹⁾ 도입 이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.
 - 국내 태양광 설치량(MW) : '12년 13 → '13년 389 → '14년 712 → '15년 746
 - 국내 풍력 설치량(MW) : '12년 76 → '13년 78 → '14년 47 → '15년 239
 - 2014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출액은 29억달러로 전년대비 12% 증가
 - 분야별 수출액은 태양광 23억달러, 풍력 5억달러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액의 97% 차지
- 내수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, 절대 규모가 작아 국내 기업들의 성장기반이 취약한 상황
 - 2015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약 1GW로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(130GW)의 0.77%에 불과
 - 대규모 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(태양광)와 신뢰성 검증(풍력)에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어려운 내수환경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.
 - 태양광산업은 가격 측면에서 중국 기업대비 열위에 있으나, 기술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진입
 - 국내 태양광 모듈생산용량은 3.8GW로 중국 생산용량(60GW)의 6%에 불과하여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으나, 모듈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확보
 - 풍력산업은 조선 3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투자 축소로 선진기술과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.
 - 국산 터빈은 Track Record가 확보되지 않아 기술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 양산체제 미비로 가격경쟁력도 선진기업 대비 30% 이상 격차가 나고 있음.
 - 태양광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

1)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 :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

<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>



자료 : 수출입은행, ※ 세계 최고 수준 10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준을 평가

5. 시사점

-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**제품수출** 뿐만 아니라 **프로젝트 개발**에서도 기회를 찾아야함.
 - 가격 경쟁으로 중국기업을 앞서 나가기 힘든 상황으로 제조분야의 집중보다는 **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분야**에 대한 진출을 통한 **돌파구 마련**이 필요
 - 제조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 기업들도 해외 프로젝트 개발에 눈을 돌리기 시작
 - 한화, OCI를 중심으로 인도, 터키, 중국, 미국 등지에서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
 - KT의 베트남 태양광 사업처럼 EDCF를 활용한 개도국 진출 수요도 존재
 - 중소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 수요도 존재하나, 신용 및 경험 부족 문제가 걸림돌
- 우리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 확대를 위해선 **신재생에너지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**이 필요
 -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**소규모**(태양광 20~30MW, 3~5천만 달러) 및 **짧은 금융조달 기간**(2~3개월)으로 인해 기존의 PF 방식으로는 지원에 제약이 있음.
 - 신재생에너지 사업별·국가별 특성에 맞는 **맞춤형 금융 지원**이 필요

- 기존의 여신지원 뿐만 아니라 그린본드, 투자금융 등 당행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주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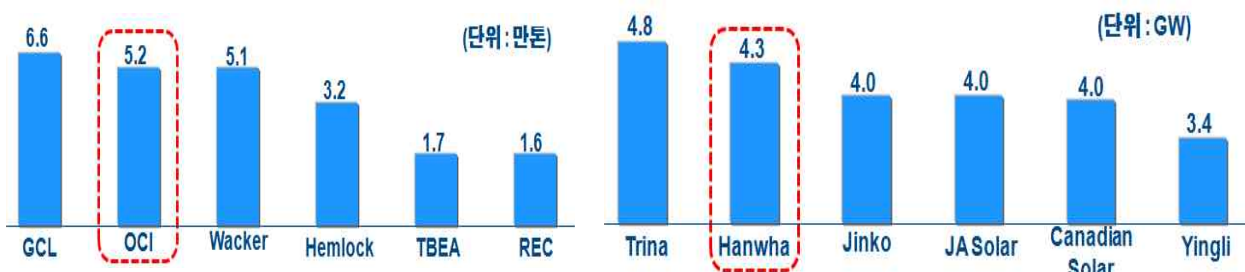
확인자	산업경제팀장 이 재 우
작성자	선임연구원 강 정 화

붙임 1.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 동향

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 동향

- 모듈과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한화 Q-Cells(2위)와 OCI(2위)사는 세계 상위권에 포진
 - 국내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OCI(5.2만톤), 한국실리콘(1.5만톤), 한화케미칼(1.0만톤) 등 총 9.3만톤의 설비를 보유, 세계 수요량의 약 30% 공급 가능
 - 올해 한화 Q-Cells는 모듈 생산용량을 5.2GW까지 확장할 계획이며, LG전자도 900MW 모듈생산규모를 1.8GW증설 예정
 - 현대중공업(600MW), 에스에너지(350MW), 신성솔라(150MW) 등 모듈 생산

<2015년 기준 폴리실리콘 및 모듈 분야 세계 기업 순위>



- 풍력산업은 효성, 두산, 유니슨, 현대중공업 등 2~3MW 터빈을 개발하여 시제품 생산단계
 - 풍력터빈 개발에 참여했던 조선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풍력분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진 업체와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.
 - 국내 사업에서 조차 외산제품에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국산 풍력터빈이 수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 - 국내 풍력산업은 단조제품 및 타워 등 부품을 중심으로 연 5,000억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.

※ 2015년 세계 풍력터빈 기업 순위(단위 : GW)

1. GE(5.2), 2 Simens(4.8), 3. Vestas(4.8), 4. Goldwind(3.8), 5. Enercon(3.8)